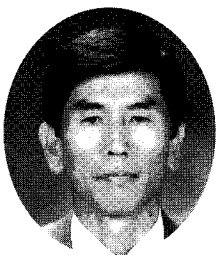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조은 쌀 안정생산 및 농민소득 증진을 위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할터

벼 재배계획 면적 13만7천6백20ha, 전국의 13% 점유
지역 담당제 등 풍년농사 위해 마무리 영농지도에 진력할 터



이 선 형
경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쌀은 반만년 우리 민족사와 함께 해온 우리의 주곡이며 우리 농업의 상징적인 존재다. 농경민족이었던 우리 선조들은 쌀농사의 풍흉이 국운을 좌우하고 농가 경제를 좌우하는 역사속에 살아왔으며 가뭄, 풍수해, 병해충 등 재난이 잦은 우리나라의 기상여건과 농경지 면적이 협소한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풍작보다는 흉작이 더 잦았던 관계로 고질적인 식량부족으로 배고픔의 어려운 고비를 오랜 세월 겪어왔다.

그러던중 1977년도에 과학영농 기술을 기반으로 최초로 쌀 4천만석을 생산함으로써 민족의 염원이던 쌀 자급 달성의 위업을 이룩하였고 쌀농사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농경지는 도로, 주택, 공장용으로 잠식되면서 '90년대 초반 쌀자급 기반이 흔들리는 시점에 농정의 중점 방향이 쌀자급으로 다시 선화하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수지 맞는 쌀농사 기술' 보급 추진

우리도의 올해 벼 재배 계획면적은 13만7천6백20ha로써 전국면적의 13%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넓은 면적이다. 지형 및 지역 여건이 다양하여 북부지방인 청송, 영양, 봉화 등지에는 해발 400m 이상의 산간고랭지가 있는가 하면 울진, 영덕, 포항 등 동해안을 끼고 있는 냉조풍 피해 우려지가 있으며 경주, 상주, 의성, 구미, 예천 등의 시군은 대평야지로서 들판이 넓고 지력이 좋아 곡창지대라 부르고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지형이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품종과 재배기술을 구분하여 지도하고 있다.

올해 쌀생산 목표는 4백42만1천석으로써 이는 평년작 보다 1백20여만석 더 많은 물량이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 10a당 500kg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80→92%), 손쉬운 벼 재배기술 농가보급, 적기 정밀 영농 실천, 병해충 기상재해, 쓰러짐 예방 등 중점과제를 정하여 매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평가 분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

쌀농사에서 단위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수한 형질을 지닌 벼 품종의 보급이다. 우리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10a당 500kg이상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양질다수성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보급해왔다. 그 결과 98년도에 식부면적의 72%까지, 지난해에는 79%까지, 올해에는 92%이상을 돌파하는 등 전국의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98년부터 보급종 공급품종을 다수성 위주로 개편한 결과이며 올해 정부 보급종 우량벼씨 공급량이 1천7백46톤으로 전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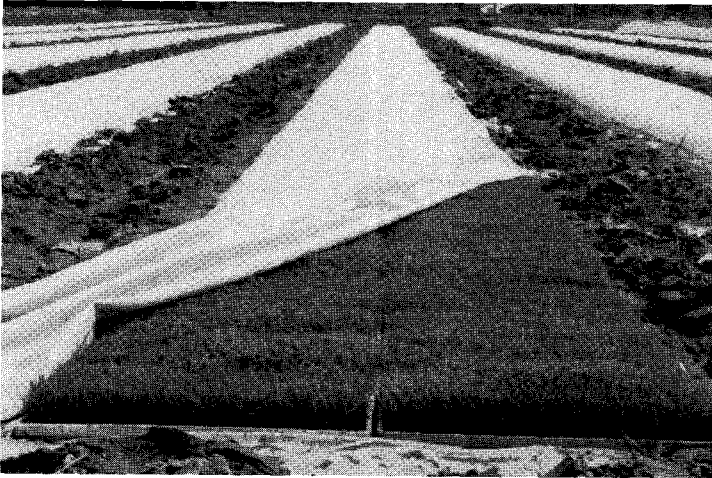
다 61톤이나 증량되었다. 또한 추곡수매 가격과의 차액 3억7천8백만원(20kg 포대당 3,980원)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우량벼씨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못자리 기술 개선 부직포 못자리 확대보급

기존의 보은 못자리는 육묘상자를 모판에 놓은 다음 활죽을 꽂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우는 보은방법이다. 이러한 비닐 못자리는 4월 하순부터 외기 기온이 상승하면 상내온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통풍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모가 고온장해를 받아 땀묘나 잘록병이 발생됨으로써 성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직포 피복 못자리 설치 기술이 '98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지도지침으로 정립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표준화 기술을 체계적으로 농가에 보급시키기 위해 시범포 못자리를 설치, 지역별로 현장 연시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내 1백27개소에 2백40만원을 지원하여 시범포를 확대 설치하고 도·시군단위 연시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그 결과 부직포 못자리 보급비율이 지난해 6%에서 올해는 30%까지 확대되었고 고온기에도 피해가 없고 모생육도 좋아 농가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직포 못자리는 육묘상자위에 활죽을 꽂지 않고 부직포로 상자를 피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비닐못자리에 비해 못자리 설치 작업 노력이 28%(ha당 21시간), 피복자재비가 69%(ha당 11천원) 절감됨으로써 도내 보급 실적(못자리 261ha)을 환산하면 11만명의 노력과 37억원의 못자리 자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활죽을 꽃지않고 육묘상자를 피복하는 부직포 못자리

벼 육묘공장 설치로 대량 육묘기술 선도

육묘공장이라는 용어는 대량 육묘 시스템을 갖춘 육묘시설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도에서는 일손부족 농가의 육묘 노력을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자동 온·습도 조절 및 관수 시설과 1회에 8천상자를 육묘 할 수 있는 개소당 170~180평 규모의 육묘공장을 '98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14개소에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8개소에 2천4백ha, 올해에는 39개소에 4천1백ha분 80만상자를 육묘하여 노력부족 농가나 육묘실패 농가, 가뭄으로 인한 모부족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그 역할을 크게 인정받게 되었다. 육묘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는 기본적으로 어린모 다단 육묘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온·습도를 최적 상태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8~10일만에 종전의 어린모 보다 키가 2~3cm 더 크고 충실하기 때문에 수위탁 농가에서 거부 반응이 없이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정립은 농

업기술원에서 설치대상 농업인에 대해 매년 4월하순에 사전 육묘기술 교육을 하고 육묘기간인 5월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추진

벼농사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병해충은 본논 초기의 벼물바구미와 잎도열병, 후기의 벼

멸구, 이삭도열병이다. 본논에서는 정확한 병해충 예찰로 적기방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찰포 23개소, 관찰포 1백50개소에 대한 적기정밀 조사와 지역별 병해충 발생 상습지역을 위주로 하여 매주 1~2회 순회예찰을 하는 등 "입체적 예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해충 발생 정보는 4월하순부터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협, 행정 등 유관기관과 대책협의를 거친 후 매회 1천8백매를 제작하여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우송함과 아울러 TV 등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홍보하고 있다.

주요 병해충에 대한 지원방제 추진실적을 보면 벼물바구미는 4만6천ha(식부면적의 33%), 잎도열병은 6만4천ha(47%)이며 또한 대면적 평야지는 방제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항공 방제를 6천ha에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 현장교육 위한 시범사업 운영

쌀농사 경종 단계별 영농현장에서 새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58개

소(265ha)를 운영하고 있다.

신육성 벼 품종 시범단지는 최근 육성된 양질다수성 품종(진품벼, 소비벼, 화봉벼, 농호벼 등)을 개소당 2ha 규모로 재배하여 농업인이 새로운 벼품종 특성을 관찰하여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단지는 기상재해로 쌀자급 달성이 어려울때와 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10a당 쌀 생산량이 700kg을 넘어서는 다산벼, 남천벼, 안다벼 등 다수성 벼품종의 종자를 매년 일정수준 확보하기 위한 종자증식 단지로 개소당 10ha 내외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볍씨는 수매후 별도 보관하게 된다.

벼 건답골직파 시범단지는 트랙터에 부착된 골타기 장치로 깊이 7cm내외의 골을 만들면서 골에 볍씨를 파종 및 진압하는 직파방식으로 도복이 예방되고 또한 파종후 5~10cm 깊이로 물을 1~2회 대어줌으로써 싹트기가 빨라져 싹튼후 잡초약을 1회만 처리하면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손쉬운 직파재배 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 시범단지는 벼농사의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직파재배, 어린모 재배, 무경운 이앙재배 기술을 실천하고 있으며 단지 개소당 규모는 10ha내외로 운영하고 있다.

풍년농사 위한 금후 계획

적기모내기와 모내기후의 비교적 순조로운 기상, 그리고 가지거름 적기사용, 벼물바구

주요 시범사업 내용

| 구 분 | 개소수 | 면적(ha) | 참여 농가수 |
|-------------------|-----|--------|--------|
| 계 | 58 | 265 | 479 |
| 신육성 벼품종 시범단지 | 7 | 15 | 7 |
|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단지 | 6 | 57 | 107 |
|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 19 | 9 | 19 |
| 벼 건답골직파 실증 시범단지 | 10 | 44 | 97 |
| 벼 답수표면직파 실증 시범단지 | 9 | 24 | 32 |
|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 시범단지 | 3 | 31 | 51 |
| 정밀균형 벼재배 시범단지 | 4 | 85 | 166 |

미, 잎도열병 적극방제 등으로 현재까지의 벼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다.

앞으로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후기 병해충의 적기방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예찰반을 편성, 매주 1회 이상 취약지 중심의 정밀예찰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행정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동 지원방제 체계를 간밀하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벼 품종별로 우수진단에 의한 출수예상기를 파악, 이삭거름 시용 시기와 이삭도열병 방제적기를 마을에 게시하고 새벽 앰프방송 및 TV, 라디오, 일간지 등 매스컴을 통해 시기별로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쓰러짐 방지를 위해 물걸러대기를 철저히 실천하며 웃거름 적기에 알맞게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막바지 쌀농사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반을 도단위 22개반 44명, 시군단위 215개반 657명을 지역담당제로 주요시기별로 현장에 파견, 마무리 영농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풍년농사는 기필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약정보**